

보광종합건설, 목포 골드클래스 9차 리더스뷰 공개

백련지구 최고 입지 조건... 69㎡·76㎡·79㎡ 등 356세대 분양 학군·교통망·주거품질 '명품 프리미엄' ...오늘 모델하우스 오픈

광주·전남 주택건설 대표기업인 보광종합건설이 목포 백련지구에 명품 프리미엄 '골드클래스 리더스뷰'를 공급한다.

보광종합건설은 "12일 전남 목포 백련지구 마지막 자리인 A-1블록에 '골드클래스 9차 리더스뷰'를 공개·분양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단지는 목포 연산동 2022번지 일원에 지상 최대 15층, 356세대 규모로 들어선다. 전용 면적별로는 ▲69㎡ 105가구 ▲76㎡·79㎡ 251세대 총 5개 동으로

이뤄진다. 보광종합건설의 '골드클래스' 분양은 목포에서만 아홉번째로, 지역 대표적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보광종합건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AAA 등급'을 획득,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목포 백련지구에 공급되는 '골드클래스 9차 리더스뷰'는 백련유치원부터 백련초·청호중 등이 집중된 우수 학군을 자랑한다. 인근 교통망도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목포IC·고하대

로·용해지구 등으로 빠르게 연결되며, 목포역 KTX·SRT도 가깝게 누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목포시청,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공공서와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주변 유향산 산책로, 백련공원 등 여가활동 공간도 충분하다.

보광종합건설이 주택공급에 최우선으로 집중하는 주거 품질은 '최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목포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9차 리더스뷰'는 민간참여



목포 백련지구 골드클래스 9차 리더스뷰 조감도.

/보광종합건설 제공

공공주택사업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특화설계로 '와이드형 단지'를 선보인 다.

또한 전세대를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평생조망권 확보할 수 만큼 '랜드마크형 설계'가 돋보인다.

입주자 편의성을 고려한 ▲원패스 시스템 ▲IOT 기반 스마트홈 ▲엘리베이터 호출 기능 등 최첨단 주거 기능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넉넉한 조경과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주차장 설계로 단지 내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골드클래스 9차 리더스뷰' 주택전시관은 목포시 옥암동 1225-5번지에 마련됐다. 입주는 2021년 4월 예정이다. 분양에 대한 자세한 문의전화는 061-285-0000에서 가능하다.

한편 보광종합건설은 광주·전남 주택 건설업계를 견인하고 있다. 2017년 시공능력평가에서 광주 1위, 올해의 경우 대구에 처음으로 '수성 골드클래스'를 보급하는 등 전국에 5,200여가구의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엄일석 (주)에어필립 회장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

엄일석 ㈜에어필립 회장이 '2018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11일 에어필립에 따르면 엄 회장은 최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9회 '2018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인재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인재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한 엄 회장은 지난 6월 말 호남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을 취항시켜 지역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저



소득층 아동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에 앞장 선 공적으로 평가를 받았다.

엄 회장은 "사람중심의 인재경영을 통해 정부의 고용 정책에 귀감이 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호남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광주은행은 11일 오전 홀리데이인광주호텔 1층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임직원, 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Prime PB센터'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버스킹' 공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쏠을 신차(프로젝트명 SK3) 출시를 앞두고 이색 이벤트를 가졌다.

11일 기아차에 따르면 광주공장은 하반기 출시 예정인 쏠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버스킹 공연을 이날 열었다.

이날 버스킹 공연은 지난 2008년 1세대 쏠 출시 이후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며 박스카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형성한 쏠 생산의 주역인 광주1공장 의장공장 앞에서 진행됐다.

버스킹 공연과 함께 기아차 광주공장은 쏠을 신차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해 쏠을 신차 성공에 대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김영민 기자

간편가정식 '국물요리' 큰 인기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혼밥과 혼술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간편가정식 가운데 국물요리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1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체 간편가정식 판매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6.5% 성장했다.

또 날씨가 쌀쌀해진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국물요리는 28.7%, 탕요리는 15.7%, 면 요리는 10.5% 증가했다.

특히 국물요리는 지난 2016년에 비

해 판매가 5.2% 성장했으며, 간편가정식 중 구성비는 3.8%로 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물요리 판매 성장에는 요즘 같이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차가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요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원중이마트 상무점 점장은 "차가워진 날씨로 국물요리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국물요리를 맞출 수 있게 상품준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VIP 오세요" 광은 Prime PB센터 개점

홀리데이인 호텔 1층...차별화 자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광주은행이 지역 VIP 고객 유치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11일 광주은행은 오전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1층에서 송중욱 은행장과 임직원, 외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Prime PB센터' 개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Prime PB센터'는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VIP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주은행은 센터에 금융상담전문가인 전담 PB(Private Banking) 직원을 배치하고, 고객별 금융 니즈를 파악한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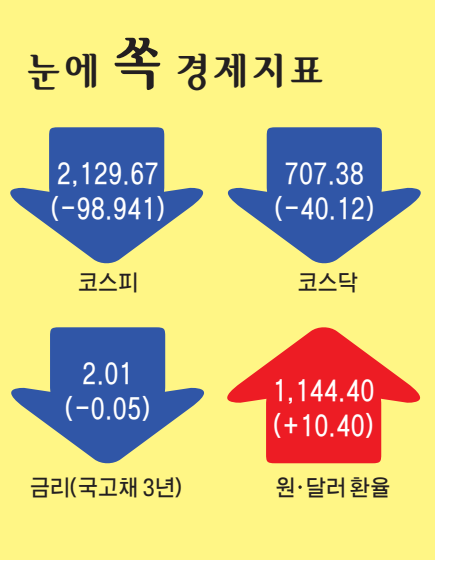
특히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개별화된 자산관리를 통해 VIP고객들에게 최적의 금융솔루션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세미나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금융상품·부동산·재테크·은퇴설계·

세무·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광주은행은 'Prime PB센터' 개점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밀착형 자산관리를 통해 지역 금융서비스 수준 향상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중욱 광주은행장은 "'Prime PB센터'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도 고객과 상생발전하며 100년 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color!
Autumn
컬러어뎌?

#으깬장미

THIS AUTUMN
THE NEW MLBB